지난 추억이 남기도 하며 힘이 되기도 하는 사진

1955년서울중구만리동우유가루배급을받기위해줄을서있는꼬마들. 양은냄비와미군이썼던항고, 그리고양은양재기와 배급통장을들고기다리는밝은표정의어린이들. 이사진속에어느대학교 교수가한사람있다.

내가서울피난길에서올라온것이 1954년이었는데그당시만해도카메라를가지고있는사람이면누구라도얼마든지좋은사진을찍을수가있었다. 당시서울시내는전쟁으로쑥대밭이되어있었고다들헐벗고못먹었다. 그때만해도봄이오면즐겁기보다는호랑이보다더무섭다는보릿고개란것이있어사람들은3, 4, 5월을넘기는데걱정이태산같았다. 보릿고개를잘넘기면일년을더살았다고할정도로그기간은어려웠다. 시골에서는가을이되면나이가다차지도않은어린딸애를입하나줄인다고시집을보내느라서둘러여기저기중매를넣기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정다웠고인정이넘쳐흘렀다.

나라가한국전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나는서울시내이곳저곳을다니며역사의현장을사진으로기록했다. 다니다보면절망과희망이같이있었다. 당시미국구호단체에서보내온우유가루배급을받으려고줄을선어린꼬마들의얼굴역시그리어둡지만은않았다. 당시꽁보리밥이라도제때에먹을수있는사람은상류층에속했다. 나역시그시절엔식당지배인이란직업을일년동안갖고서시간나는대로서울시내를돌아다니며사진을찍었던터였다. 그때에아무생각없이시내이곳저곳, 전흔이남아있는풍경들을다찍어두었더라면그것들이지금좋은사진자료가될수도있었을텐데, 섣불리사진작품을만든다며좋은소재를보고도그냥지나치는바보스런짓만했으니, 그나마그당시찍어둔사진몇장이기록으로남아있어사진찍는한사람으로서겨우부끄러움을면한셈이다.

이사진의추억은, 1980년도에예술의전당전시실에서한국전쟁후사진들을간추려전람회를열었을때어느일간신문에서이사진이크게게재한것을본이사진속의한아이가장성하여내게전화를걸어오면서시작되었다. 그는인천한대학의교수로재직중이었다. 그는서울의한신문사에근무하고있던제자에게전화를걸어그사진을한장구했으면좋겠다는부탁을했고, 다음날제자는내가근무하던신문사로찾아왔다. 그는스승이그사진속에있는데사진한장을구하고싶다했다. 40년된사진속의주인공을직접만나보지는못했지만나는그에게기꺼이사진을주었다.

내사진속에찍힌사람들중에는크게성공한사람도있고사업가로돈을번사람도있을것이며부잣집며느리로시집가서잘사는사람도있을것이다. 이미세상을떠난사람과열심히일하고당시를생각하며사회에베푸는사람도있을것이다. 한장의사진은순간찍지만, 그사진은그안에지난추억이남기도하며힘이되기도한다.

사진속의어린교수는우연한사진을보며무슨생각을하고있는지나는궁금하다.